

수 있도록 협회장님이 노력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종계업계에 당면한 사안은 많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종계장 방역시설 지원과 오는 5월 시행되는 종계장방역관리요령의 부당성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종계업 발전을 위하여 종계장방역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종계농가라면 누구나 동감하는 바이지만 질병의 온상인 백세미 농가에 대한 관리 없이 일반종계 농가의 질병 관리만 하겠다는

것은 병의 근원은 방치하고 외상만 치유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상생의 원칙에도 벗어나 이 요령의 실효성마저 의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계업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회장님의 역량과 종계농가의 단합으로 종계장 관리요령을 바로잡아 종계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아무쪼록 임기동안 당면한 양계업 현안을 잘 지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시 한번 회장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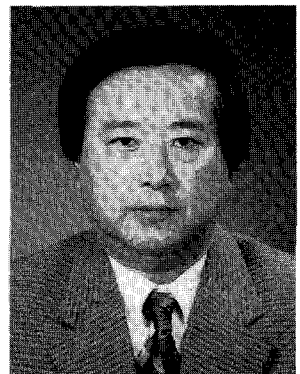
육계업 생산 기반을 다지는 정책을 펼쳐야...

김 영 근

부산경남 지회 육계분과위원장

우 선 대한양계협회 제17대 회장 당선을 축하합니다. 지난 3년은 양계산업에 많은 사련과 변화가 교차하는 진통을 겪어 왔습니다. 생산량 과잉으로 인하여 육계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생산 농가는 기로에 섰으며 설상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양계산업 자체가 존립의 위기에까지 왔던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행이 지난해는 산물가격의 상승으로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간 많은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논의되고 방향이 제시되었다. 이제는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17대 회장님께 기대를 하며 몇 가지 건의합니다.

첫째, 산물의 과잉생산 방지를 위하여 정확한 통계 자료를 산출 방식을 마련하여 전과 같은 불황을 격지 않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행이 종계 D/B구축 사업은 우리 육계인으로서 거는 기대가 크다고 보며,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기관과 협의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양계산업 전반을 위태롭게 한 조류인플루엔자는 다시는 국내에서는 발생하면 안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의 방역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부 당국과 협조하여 적절한 대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셋째, 조류인플루엔자로 주춤했던 닭고기 수입이 본격화 되고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초입기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누구나가 아는 자명한 사

실입니다.

수입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다시금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정부당국과 협조하여 강력히 단속할 수 있도록 대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이외에도 육계표준사육계약서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하나 이만 줄이고, 올유년 닭의 해 제17 회장님께 거는 기대는 우리 양계인 모두 남다를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양계

“농장에서 식탁까지” 체계적 관리 유도

정 영 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희망찬 올유년 닭의 해를 맞이하여 양계산업의 일익 번창하심과 양계가족 모두의 소망이 함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양계산업은 우리나라 축산업의 효시를 이루었고, 양계협회는 축산단체중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닭고기와 계란은 국민식생활 가운데 필수 영양식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식생활 양상은 양보다 질 위주로 변화되고 있으며, 위생적으로 안전한 축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또한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는 가축질병 청정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위생처리

는 물론 유통·소비 등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계업계는 지난 '03년 12월 충북 음성을 시작으로 7개 시·도 10개 시·군의 닭과 오리농장에서 19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 최초로 발생하여 1,530억원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바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태국, 베트남등 국가들

